

정말 처칠은 벵골대기근에 대해서 무죄일까?

멘붕박사

벵골 대기근의 진실 두둥탁하면서 처칠이 해외로부터의 식량원조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. 과연 진실일까?

이는 부분적으로 진실이며, 대체로 거짓이라고 말해도 된다.

이 글을 읽은 독자는 "아니 씨발? 부분적으로 진실은 뭐야? 맞으면 맞는거고 틀리면 틀린거지 부분적으로 맞다는건 뭐야?"라고 할 것이다.

물론 처칠이 해외로, 특히 호주로부터 곡물 수출을 받아 벵골이 지원한 것은 맞다. 이에 대한 증거로 드는 것이 1944년 4월말에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쓴 편지로

"작년에 벵갈에서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, 최소한 70만명이 죽었습니다. 군수물자 수송을 줄임으로서, 1944년 첫 9달동안 호주로부터 35만톤의 밀을 인도로 보내도록 지시 했습니만, 이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미 수송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마당에 추가로 부담을 드리기 죄송스럽지만, "일본"에 대항하는 우리의 공동작전에 인도의 안정적인 상황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, "호주"에서 인도로 밀을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배들을 할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."

라는 것을 주요 증거로 삼는다. 그런데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다. 벵갈 대기근은 1942년에 시작되어 1943년에 피크를 찍었다. 즉 대기근 2년동안의 수출 금지 여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!

그러면 처칠의 전쟁내각은 대기근 2년동안 수출을 억제했을까?

The Secretary of State for India, Leo Amery, was on one side of a cycle of requests for food aid and subsequent refusals from the British War Cabinet that continued through 1943 and into 1944"[Mansergh & Lumby 1973](#), Documents 59, 71, 72, 74, 98, 139, 157, 207, 219, as cited in [A. Sen 1977](#), p. 53"

실제로 거부했다.
그만 알아보자.